

서평 : 한국기독교교회사 Ⅲ 중 "13장"

노주찬 (3-5) 2017210285

한국교회사 (화1-2) 박용규 교수

2019. 11. 29. (금) 제출

I. 저자의 의도

우리는 일찍이 존 프레임의 논문을 복음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본 바가 있다. 특별히 복음주의가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그 기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해보았다. 한국기독교교회사 3권 중 4부, '한국 복음주의 운동과 해외 선교 운동'에서 첫 번째 장을 여는 13장의 제목은 근대복음주의운동과 한국복음주의 운동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복음주의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역사, 내용 그리고 중요성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본 장의 내용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고 영국의 복음주의에 이어서 이 한반도에 복음주의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복음주의는 많은 도전을 받았다. 특별히 서구사회에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복음주의의 가치와 정신에 도전하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다. 청교도 전통이 급격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물질만능주의가 사회 깊숙이 침투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주의의 전통과 안전한 신학의 흐름이 대한민국 한반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왜 박용규 교수님은 '한국기독교교회사 3권'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13장의 내용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전수받은 신앙, 우리의 삶과 믿음에 영향을 준 신앙, 평양신학교를 모체로 삼는 우리 총신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신학,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갈 신앙이 바로 복음주의인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들어왔고 어떻게 발흥하고 쇠퇴했으며,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13장을 통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II. 느낀 점

본 장은 복음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를 배움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나아갈 방향과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 특별히 '통일한국 시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중요한 주제이고 사회적 상황이지만 기독교적 통일 연구에 있어서 기본전제는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복음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체에 복음의 물결이 일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복음의 두 번째 물결이 이 땅 위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주의의 물결이 다시 한 번 파도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이 한반도의 미래인 통일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고찰되고 이행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일으켜 주셨듯이, 다가올 미래, 앞으로 새롭게 써갈 한국 기독교 역사의 통일미래도 철저히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평 : 한국기독교교회사Ⅲ 중 "23장"

노주찬 (3-5) 2017210285

한국교회사 (화1-2) 박용규 교수

2019. 11. 29. (금) 제출

I. 저자의 의도

23장의 내용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자 보수신학의 요새, 개혁신학의 요람인 '예장합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 예장합동 교단은 한반도 기독교의 제1 교단일 뿐만 아니라, 개혁파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의 유산이다. 특별히 한국교회사를 강의하는 박용규 교수님이 학생들로 하여금 23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전통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평양신학교 제 4항에서는 '본교의 학생에게 복음주의의 진정한 정신과 차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고취하고 장려하여 내외국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를 확립케 하기로 목적함'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서의 저자는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WCC 에큐메니칼 운동 문제의 심각성과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보수측 교회들이 그 세력권에 들어가고 있지만,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의 후예인 우리들이 정통진리의 보수와 전파에 매진하며 한국교회의 신속한 발전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단과 이 신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신학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형록 박사가 1958년 신학지남을 통해 발표한 내용, "우리교회는 칼빈주의 개혁파 장로교회의 전통적 복음주의신앙을 충실히 보수하여 오는 입장에 있으니 이 WCC 에큐메니칼운동에 방심하고 무조건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다."를 통하여 본서의 저자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II. 느낀 점

2007 총신대학교 학부에 입학한 이후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 2020년 2월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될 것이다. 총 14학기의 신학함을 통해 내가 가장 크게 알게 되었고 또한 감사한 것은 바로 '개혁주의 신학'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확신 있는 신학을 접하게 되었고, 그 신학함이 신학도인 나의 믿음의 신앙고백 그리고 나의 삶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렇다. 개혁주의적인 전통과 복음주의 유산을 물려받은 총신이 바로 나인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근본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철저한 개혁주의자이다. 성경의 오류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문화적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사명이 있는 자이다. 나의 입장이 총신의 신학적 입장이 되고, 총신의 입장이 나의 신학적 입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역사 동안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며 지켜온 보물과 같은 신학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오고 계승해온 유산을 이제는 내가 지켜나가야 할 때이다.